

팬데믹 전후 북한 농업 및 농정의 변화와 전망¹⁾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kyhoon@krei.re.kr

I. 만성적 경제침체와 식량부족의 심화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후 북한의 경제와 농업은 위기를 맞았다. 이전 10여 년간 진행된 사회주의경제 불력의 해체로 북한경제가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내내 북한의 GDP는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성이 한국의 55~60% 수준에 불과할 만큼 낮아졌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총체적인 위기 시기를 스스로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 칭하기도 했다.

후계자 김정일은 농업에서 실천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구했다. 이 시기부터 농업 기반의 복구와 정비, 우량종자의 개발과 보급, 영농의 과학화와 현대화 등 목표가 뚜렷한 농정과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청산리 정신, 농촌혁명의 완수, 주체 농법 등으로 대표되는 선대의 추상적 농정을 우회할 실천적 대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농정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선행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개혁을 통한 효율화와 개방을 통한 투자유치였다. 북한 농업에서 개혁 실험은 농업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자본 유치 노력은 제도 개선과 특구 개방 시도로 이어졌다. 체제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되었지만 개혁과 개방은 김정일 정권 내내 시도되었다. 그러나 개혁은 불충분했으며 개방은 필요한 투자를 불러오지 못했다.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1) 본고는 글은 아래에 제시한 두 글과 발제자료를 인용해 재정리했음을 밝힌다.

(1) 김영훈, 「최근 북한 농정과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4호 포커스, KREI, 2023. 3.

(2) KIM, Young Hoon, "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Policy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9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MOEF & KDI, Sep. 14 and 15, 2023.

저생산과 공급부족도 피할 수 없었다.

김정은 시대에도 선대와 유사한 수준의 개혁·개방 노력은 계속되었다. 집권 이듬해부터 북한은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조치(2012~)’의 일환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했다. 이 개혁의 내용은 농장 내외의 분권화와 농민 인센티브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구 개방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의 중앙 특구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급 경제개발구도 새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북청, 어랑, 숙천 등 농업개발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결과도 성공적이지 않았다. 경제침체는 지속되었으며 농업생산도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식량 생산은 더 강해진 경제제재와 팬데믹 봉쇄의 여파로 김정은 집권 초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표 1>을 보면 연평균 곡물 생산량이 제재 이후 1.9% 감소했으며, 코비드 팬데믹 봉쇄 후 1.9%가 더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부족량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 증가와 해외 도입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생산량 감소 추세는 2022년에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작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총 18만톤(3.8%) 감소했다. 맥류를 제외한 모든 식량작물의 생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2022년의 식량 생산 감소는 불리한 농업기상과 화학비료의 공급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1> 북한의 식량 생산 및 소요량 추이(2012~21년)

(단위: 천톤, %)

구분	2012~16년	2017~19년	2020~21년
연평균 생산량 ¹⁾	4,720 (100.0)	4,630 (98.1)	4,540 (96.2)
연평균 소요량 ²⁾	5,780 (100.0)	5,890 (101.9)	5,960 (103.1)
연평균 부족량 ³⁾	1,060 (100.0)	1,270 (119.8)	1,410 (133.0)

주: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각 연도.
2) FAO 추산치(식량, 가공용, 종자용, 손실)를 기준으로 계산(FAO, GIEWS UPDATE, 14 June 2021).
3) 수입과 비공식 생산을 계상하지 않은 수치임.

<표 2> 2022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구분	단위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재배면적	천ha	1,889	502	748	351	104	156	28
2022년 생산량 (증감률)	천톤 (%)	4,510 (-3.8)	2,070 (-4.2)	1,570 (-1.3)	490 (-14.0)	180 (+12.5)	180 (-5.3)	18 (-21.7)
2021년 생산량	천톤	4,690	2,160	1,590	570	160	190	23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 12. 15.

II. 새로운 농정으로 전환

전반적인 경제침체, 식량 생산의 감소, 고립과 봉쇄에 따른 수입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식량부족이 심화하고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자, 북한 내에서는 제2의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때마침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021. 2)에서 김정은은 농업부문 계획과 실적 보고가 ‘허풍’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과 내각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도자의 질책과 당과 내각의 결심은 다가올 정책 변화에 대한 예고였다.

북한은 2021년에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채택하고 새로운 농정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¹⁾ 이들 농정의 변화는 2021년에 발표된 두 문건과 그즈음 신설하거나 개정된 법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첫째 문건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2021. 9)에 대한 보도 문건이다. 이 연설에서는 주로 미시적 차원의 새로운 농정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문건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의정3>에 대한 보도 문건(2021. 12)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거시적 차원의 농정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농정은 2020~22년 사이에 신설하거나 개정된 법규를 통해 기능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제4차 전원회의의 <의정3> 보도 문건에 들어 있는 거시적 농정전략의 핵심은 자립과 사회주의적 관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북한 농정이 개방적 활로 모색보다는 고립에 대응하는 수구 전략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문건에서는 1964년에 발표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농촌 3대 혁명’ 관철을 재차 상기하면서 자력갱생, 계획, 지도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의 연설 문건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농정 추진과제를 이례적으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연설과 전원회의 <의정3> 문건에서 다루어진 농정과제는 크게 10여 가지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지만,²⁾ 그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는 다음의 4개 과제를 골라 추려낼 수 있다.

1) 북한은 2021년 12월 말에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한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을 새로 채택했다(송현진, 2022, p.120)
2) 중요하게 언급된 농정과제는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소출이 높은 종자의 육종과 개량, 머농사와 밀·보리 농사로 방향 전환, 축산부문의 정책, 과일 및 낱새 생산의 집약화와 전문농장 건설, 유지작물의 다양화와 생산 증대, 새로운 수매 전형단위 창조, 농업과학기술 육성, 사회주의 농촌 개편, 농업 관련 국토관리(김정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평양 중앙통신, 2021. 9. 30), 농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강화(조선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2.12) <의정3>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등이다.

-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 알곡 생산·소비구조의 변화(쌀·옥수수 중심에서 쌀·밀 중심으로)
- 농업부문의 새로운 수매 전형단위의 창조(국가수매 확대, 양곡판매소 활성화)
- 국가 투자 및 지원 강화(농기계 보급, 황해남도 농업 특별지원, 협동농장 부채 면제)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등장한 이들 농정과제의 이행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자본의 부족, 개혁의 지연, 대외 여건의 불리 등 전통적인 제약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일부 농정과제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유효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정 전환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 같다. 새로운 농정을 추동하기 위해 일찍부터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해 왔다. 2020년 이래 제정·개정된 새 법규는 첫째, 사회주의 통제를 구체화 내지 강화하는 법률(농업법, 농장법, 양정법의 개정, 단위특수화 및 분위주의 반대법, 허풍방지법의 제정), 둘째,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농업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률(농작물종자관리법 개정), 셋째, 알곡 생산과 소비구조 전환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농장법 개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법률은 새로운 농정과제 추진을 다양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III. 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과³⁾

식량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2023년 2월 초,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예고가 전문가들의 주의를 끌었다. 후속될 당중앙위원회 회의와 그 의제에 관한 예고였다. 첫째 예고는 2월 하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된다는 사실이었다. 앞선 회의가 폐막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더 특별했던 것은 주요 의제로 농업과 농정을 다룬다는 것이었다. 그 예고의 세부 내용은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 실현에 대한 2022년 성과를 결산하고 당면 농사 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토의한다는 사실이었다. 예고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한 달 후 열릴 당 전원회의는 큰 관심과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3) 김영훈(2023), pp.6~7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2023년 2월 말에 예고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농촌혁명 강령 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 정형과 일련의 중요 과업’으로서 농업에 관한 문제였고(의정1) 그 외에 3개 의제⁴⁾를 더 논의했다. 그중에서 농업 의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할 수 있다.

- 2022년도 농업·농촌부문의 사업성과 분석⁵⁾
- 알곡 목표 점령을 위한 주된 농업발전 목표와 과업
- 농업생산 지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시행 방도
- 농촌건설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과업

“알곡 목표 점령을 위한 주된 농업발전 목표와 과업”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관개체계 완비, 농기계 보급과 농기계 부문 개진, 경지면적 확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다. 관개체계 완비 방안으로는 올해 계획의 이행과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 경지면적 확대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간석지 개간이다. 농업과학기술 발전 방안으로는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된 논의 대상은 농업위원회, 농업연구원, 기상수문국 등의 각 과학연구 단위이며, 과학기술 첨단기지화 추진도 논의했다. 농업발전의 중점 목표와 과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진부한 논의를 답습하는 데 그친 것 같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농정전략과 농정과제에 대한 논의는 보도 문건에 생략되어 있다. 이는 새 농정과제 실행에 관한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정의 두 번째 의제는 “농업생산지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시행 방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세 가지의 시행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농사 지도에서 편파성을 극복하고 전반을 책임지는 균형성 보장, 둘째는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투쟁, 셋째 방도로는 도·시·군 지도기관의 역할 제고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편파성 극복과 균형성 보장’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그 대상을 ‘지역’으로 본다면 황해남도 농업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대상을 ‘농장’으로 본다면 특정 전형단위(시범농장)에 대한 집중 육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데 중심을

4) 농업 의제 외 3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인민경제계획 수행 규률 확립(의정2)’,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을 위한 당면 문제들(의정3)’, ‘조직 문제(의정3)’

5) 북한의 시사매체는 이에 대한 해설 보도를 생략하고 있다.

두고 투쟁”할 것이라는 문구에서도 확인된다. 그 대상을 ‘작목’으로 이해한다면 특정 작목 중심의 생산구조 전환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⁶⁾

한편, ‘정보당 수확고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자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야 하고 투입재도 더 공급해야 한다. 북한 경제와 농업의 현 상황에서 이는 가능하지 않고 단기간에 개선될 수도 없다. 이 밖에 ‘도·시·군 지도기관⁷⁾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번 보도 문건의 다른 부분과 또 다른 문건에서는 농업에 대한 ‘당의 역할’과 ‘내각의 역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건설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과업”은 ‘현대적인 농촌살림집 건설’을 중심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농정과제에서 ‘농촌 건설사업’의 중심 개념은 농촌주택 건설이며, ‘농업 건설사업’의 중심 개념은 관개체계의 건설과 간석지 개발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어젠다를 예고해 관심을 촉발했으나, 회의 결과에서는 주목해야 할 새로운 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2022년 농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보도에서 생략되었으며,⁸⁾ 향후 농정 추진전략과 과제에 대한 논의도 기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나름의 의미를 찾는다면 한 가지 개연성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농정당국이 향후 추진할 농정과제를 추진 가능한 범위로 좁혀 재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 농업이 봉착한 제약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2022년 평가와 단기 전망

2022년 초는 북한의 농업과 식량 수급에 경고가 많았던 시기였다. 경제제재와 코로나 봉쇄의 부정적 효과는 이전에 비해 한층 더 누적되어 있었을 것이다. 봄철 농업생산 활동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름철 생육기 기상도 평년에 비해 불리했다. 가장 중요한 농자재 화학비료의 공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감염병은 북한 국내로 급속하게 확산해 한때 위기를 우려할 정도였다.

6) 보도 문건의 내용만으로는 ‘편파성을 극복하고 균형성을 보장해야 할 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북한 농업정책의 향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시·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일컫는다.

8) 보도 생략 그 자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있다. 2022년 북한 농업의 성과는 낮지만 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성과가 높았다면 회의에서 당연히 긍정적 평가와 선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반대로 식량 위기를 초래할 만큼 농업생산이 붕괴했다면 농업에 대한 논의가 평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전원회의 직후 내각 경제관료들의 집단적 반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농업부문의 요직들이 유임되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로동신문』,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2023. 3. 3, 연합뉴스, 2023. 3. 3의 기사에서 재인용).

이러한 여건에서도 북한은 식량 수급과 식량 생산에 파국을 맞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량 생산이 전년에 비해 3.8% 감소해 2023년 수급 여건은 더 나빠졌다. 식량 수입이 생산 감소분만큼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올해 식량 공급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제재의 부정적 효과가 누적되고, 집단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했던 농업정책의 단기 효과가 효력을 잃게 된다면,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부족’에서 ‘위기’로 한층 더 심화할 개연성도 있다. 이는 모두 2023년 초 단기 전망을 어둡게 예상했던 이유다.

그러나 2023년 전반기가 지난 현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수급과 생산에 단기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표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그 기대는 코로나 봉쇄 해체에 따른 식량과 비료 수입의 증가(표 3, 표 4), 농업기상의 평년 상태로의 호전, 맥류 재배면적의 확대,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북·러 접근과 러시아산 식량 도입 증가의 가능성에 기초한다.

지금까지의 추이를 고려할 때 하반기 여건이 크게 역전해 악화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곡물의 시장가격 변화를 보면, 2023년에 들어 다시 안정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남은 기간 동안 특별한 변수가 돌출하지 않는다면 식량 생산은 전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농업은 경제적 기반이 여전히 미약하고 새로운 농정의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건에 있다. 따라서 비록 호전된다고 해도 그것이 중장기적 개선의 신호는 될 수 없다.

<표 3>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2015년~2023년 6월)

(단위: 천달러, 톤)

연도	쌀(1006)		밀가루(1101)		보리(1107)		옥수수(1005)		대두(1201)		합계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2015	10,770	17,139	5,646	14,436	672	1,153	3,016	9,890	4,504	6,015	24,608	48,633
2016	24,844	41,878	2,535	6,958	628	1,113	1,010	3,125	556	614	29,573	53,688
2017	21,361	35,581	32,623	81,654	638	1,311	11,257	34,339	61	91	65,940	152,976
2018	24,634	43,532	63,047	187,802	1,002	1,979	1,137	4,344	881	1,319	90,701	238,976
2019	77,507	161,609	73,177	223,579	1,327	2,625	6,303	22,939	670	642	158,984	411,394
2020	589	1,325	35,478	109,633	730	1,587	361	1,237	0	0	37,158	113,782
2021	0	0	340	980	585	5,260	0	0	5,904	14,472	6,829	20,713
2022	33,210	74,866	18,387	55,507	905	1,491	0	0	7,336	4,926	59,837	136,790
2023 (1-6월)	53,392	114,997	18,008	46,258	1,026	1,368	2,211	5,970	39	60	74,676	168,654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검색일: 2023. 8. 29), 중국해관(<http://www.customs.gov.cn>, 검색일: 2023. 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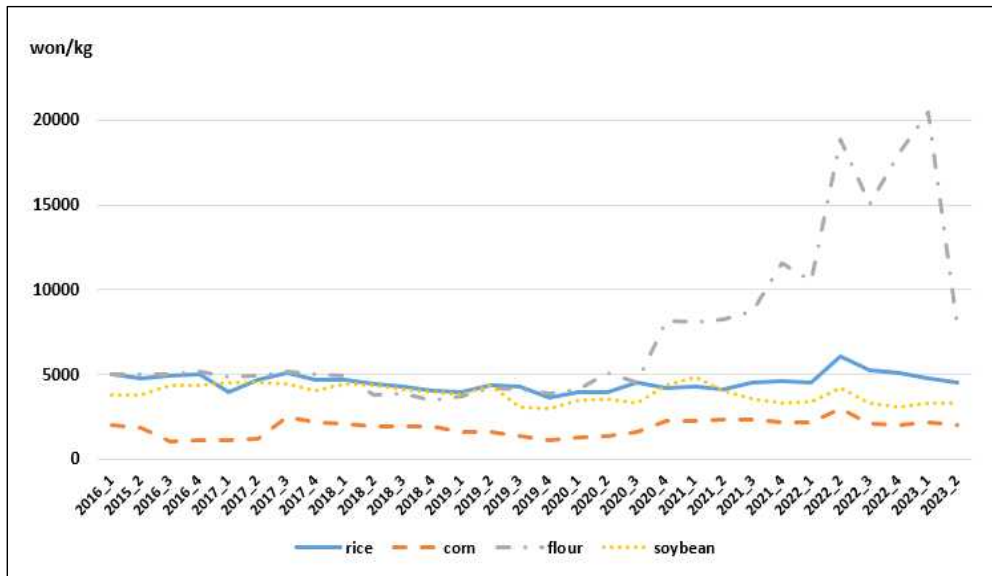
<표 4> 북한의 대중국 화학비료 수입(2015년~2023년 6월)

(단위: 천달러, 톤)

연도	N (3102)		P (3103)		K (3104)		복합비료 (3105)		기타 (310590)		합계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2015	17,926	67,381	0	0	28	48	1,542	3,631	4	1	19,500	71,061
2016	33,042	146,536	25	82	67	156	4,470	12,132	11	20	37,615	158,926
2017	30,736	117,471	2	2	29	41	5,652	16,791	0	0	36,419	134,305
2018	80,744	252,690	3	5	48	65	3,810	8,976	169	261	84,774	261,997
2019	29,944	94,169	0	0	138	191	12,768	27,485	268	596	43,118	122,441
2020	3,691	15,052	0	0	0	0	1,759	4,097	0	0	5,450	19,149
2021	11,167	22,000	0	0	0	0	13,040	25,885	0	0	24,207	47,885
2022	5,415	13,800	0	0	0	0	10	5	0	0	5,425	13,805
2023 (1~6월)	1,577	7,020	0	0	0	0	54,161	92,225	0	0	55,738	99,245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검색일: 2023. 8. 29), 중국해관(<http://www.customs.gov.cn>, 검색일: 2023. 8. 29).

[그림 1] 북한 주요 곡물의 시장가격 비교(2016~23년, 분기 말 가격)



주: 북한 내 6개 시장의 각 분기 말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NK투자개발.

V. 새 농정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전망

2021년 12월 북한은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새로 채택했다. 이 강령의 선포를 전후해 여러 차례 논의된 새 농정에서는 자력갱생, 농촌 3대 혁명 관철, 농업부문의 계획·지도 관리·수매 강화 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 변화를 놓고 그동안의 개혁과 개방 노력을 북한이 포기한 것이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엄중한 시기를 맞아 북한의 농정추진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는 여러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을 뒷받침하는 농정시책은 생산과 분배 양 측면에서 모두 제시된 바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식량에 대한 국가 수매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그 내용은 ‘새로운 수매 전형단위의 창조’, ‘양곡 수매계획을 계약수매분까지 확대 적용’, ‘영농물자교류소를 통한 자유수매분 거래 강제’, ‘양곡판매소의 활성화’ 등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식량의 분배와 유통에서 국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정책 수단들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에는 명암이 따른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의 유통에 국가가 개입한다면 분배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력을 동원해 국가가 농장과 시장을 수탈하는 것으로 끝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래 지금까지 북한 중앙정부의 계획 이행 능력과 시장 장악 역량은 꾸준히 취약해졌다. 반면에 북한의 시장 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자생적으로 발달해 왔다. 향후 국가의 개입 확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든 시장의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더욱이 물질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강제력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 부족이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하권」, 2020; 2022.
- 김영훈, 「최근 북한 농정과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제24권 제4호, 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3.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 12. 15.
-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 평화』, 제14집 제2호, 2022.
- 조선로동당,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의정3>, 2022. 12.
- KIM, Young Hoon, “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Policy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9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MOEF & KDI, Sep. 14 and 15, 2023.
- 『FAO』, GIEWS UPDATE, June 14, 2021.

<언론기사>

- 로동신문,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2023. 3. 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3011351504>, 2023. 3. 3.
- 조선중앙통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2023. 3. 2.
- 평양중앙통신, 「김정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021. 9. 30.